

## 2008년도 (제12차) 정기총회 개회사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100만 전기인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산업자원부 고정식 에너지자원정책 본부장님!

한국전력공사 권오형 경영관리본부장님, 전기안전공사 박근식 기술사업이사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원일식 이사장님, 전력전자학회 최규하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협회 제1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무자년으로 '쥐띠' 해입니다. 본래 쥐는 12지신중 왕성한 번식력과 부지런한 활동력, 그리고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어서 예로부터 재물과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풍요로움과 큰 결실을 맺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모든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활동도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대소비전력은 지난 1980년 546만kW에서 2006년에는 5,900만kW로써 무려 10배정도가 늘어나, 발전설비용량도 같은 기간동안 939만kW에서 6,551만kW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전력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눈부신 전력산업의 발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기에너지를 각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사명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여 오신 100만 전력기술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협회 임원 및 대의원 여러분!**

開  
會  
辭



지금 전 세계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FTA, TBT 협정 등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성장기업이 오늘은 퇴보하는 기업으로 변하듯이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무역시장과 산업활동은 변화무쌍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력기술인 모두가 공존하며, 제2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기술인 모두가 자기계발은 물론 기술력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도 협회를 통하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기계발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존경하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지난 25일 정식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정부조직 개편’, ‘규제 개혁’ 등 선진화로 나가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경제부장관에 경제단체의 상근 부회장을 발탁한 것은 新정부가 앞으로 모든 정책의 방향을 기업친화 정책, 즉 경제활성화를 1순위로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규제개혁업무를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추진하였었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과

같이 어려운 때 일수록 자신의 기득권이나 개인주의적 사고를 탈피하여 먼 장래를 바라보며 단결하고 혁신해가며 어떻게 하면 협회와 회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개인 이기주의와 판단 착오로 인해 수 십년간 우리 선배들이 잘 다져온 자랑스런 협회를 무력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회 임·직원과 회원 모두가 뜻을 한데 모으고 힘을 모아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有備無患(유비무환)의 자세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협회는 모든 경제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의 중요성과 기여도 및 위험성을 더욱 널리 알림은 물론,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송례문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깊은 환경, 보건, 안전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는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협회를 신뢰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자 맡은바 현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길 당부 드립니다.

##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협회는 정부의 제도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선임제도를 잘 유지시켜 왔고,



태양광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하도록 업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감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감리용역시장도 약 1조원대로 2배정도 크게 신장시킴으로서 회원 및 전기인의 위상을 높여왔으며, 우리협회가 산업자원부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의 A/S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확장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2007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한해 동안 협회가 당초 계획보다 높은 실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과 전국의 회원 모두가 협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5월에 예정인 “국제전력전자·IT 및 전기설비전”은 처음으로 KOTRA와 우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외국 바이어를 많이 유치하고 전시회 참여기업도 크게 신장하는 등 명실공히 국제전시회의 면모를 갖추 계획이며, 또한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회는 회원과 함께하는 회원중심의 경영이 우선이지만

공공성 있는 법정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지속적이며 창의적으로 협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회원과 전력기술인들이 사랑과 봉사의 열정으로 힘과 뜻을 모아, 윤리와 정도 경영의 가치 창출로 국가 발전을 리드하는 일류협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회의 당면과제인 “전력기술교육원”을 건립하고, 전력기술인들이 선진 기술로 세계시장을 누비고 다니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시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력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귀빈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창,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